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3.(금) 15:30
(지 면) 2026. 11. 14.(토) 조간

행정안전부, 본격적인 겨울철 앞두고 대설·한파 대비 범정부 대응체계 점검

- 적설 취약구조물 반복 점검, 제설 사각지대 해소 등 사전 준비 철저
- 수험생 안전관리, 한파쉼터 운영, 한파 대비 행동요령 홍보 강화도 당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대책기간(2026.11.15.~2027.3.15.)을 앞두고, 11월 13일(금)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2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정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올겨울 기상 전망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전 준비 상황과 중점 추진 대책 등을 논의했다.

* 중앙행정기관 : 국조실, 과기·교육·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노동·성평등·국토·해수·중기부, 경찰·소방·국가유산·농진·산림·질병·기상·해경청, 방미통위

**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공항공사 등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우선,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11.19.)을 앞두고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위험기상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수험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설에 대해서는 첫눈에 대비해 제설 인력·장비의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새벽·출퇴근 시간 등 취약 시간대와 주요 도로의 연결·경계구간 등 제설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기관 간 협업을 강조했다.

또한, 적설 취약구조물(노후주택,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제설취약구간 등 재해우려지역, 옥외광고물 등 강풍 취약시설물, 제설함을 반복 점검하도록 했다. 제설제와 제설장비, 난방물품 등 필요한 자원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하여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한파와 관련해서는 난방비 부담 경감과 방한 물품 지원 대책을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한파 대비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한파쉼터 위치와 운영 시간 등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제설자원 비축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00억 원을 교부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위험기상 시 비상대응체계를 한발 앞서 가동하고, 취약 대상별 맞춤형 보호 대책을 집중 시행해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위험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고,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대설)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	책임자	과 장	이일령 (044-205-5230)
		담당자	사무관	최회동 (044-205-5236)
담당 부서 (한파)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장형석 (044-205-6360)
		담당자	사무관	장현준 (044-205-636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